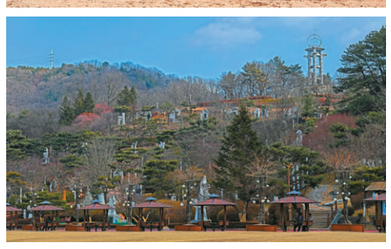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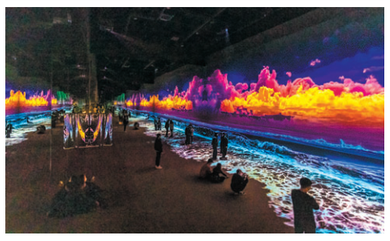
예술과 끼가 있는 '예끼마을', 가족여행 강추

못내 물러나기 서운한 듯 제법 매섭게 몰아쳤던 막바지 겨울의 혹한도 이제 한풀 꺾였다. 다음 주면 개구리가 잠에서 깨는 경칩이다. 봄날을 맞아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하고자 가족여행을 생각한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3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을 주목해 보자. 마침 이번 테마가 '힘나는 가족여행'이다. 효나 가족사랑을 테마로 한 색다른 지방 공원부터 풍광 좋은 무장애휴양림까지 전국 6곳의 명소를 모아 정리했다.

제주돌문화공원 아이 호기심 자극
대전 뿌리공원 '효'를 테마로 조성
부산 해운대 해변열차도 경치 최고
무주 '태권도' 테마 스테이 이색적
강릉 아르떼뮤지엄 아이들에 인기

안동 예끼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골목 안의 포토존, 제주 돌문화공원 야외 전시장의 거석들, 효를 테마로 조성한 국내 유일의 공원인 대전 뿌리공원, 철길 옆으로 펼쳐진 바다 풍광이 아름다운 부산 해운대블루라인파크, 태권도 테마 공연장과 전용경기장 체험관 등을 갖춘 무주 태권도원, 아르떼뮤지엄 강릉의 미디어 아트 '해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안동 예끼마을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예안면 주민들이 정착한 마을이다. 안동호를 굽어보는 언덕의 완만한 경사를 따라 180가구가 모여 사는 집과 골목이 이어진다. '예술의 끼가 있는 마을'이라는 이름처럼 골목마다 개성있는 간판과 조형물, 벽화와 트릭아트를 보는 재미가 있다. 옛 관아를 재현한 선성현문화단지는 2인실부터 8인실까지 한옥 10채로 이루어진 한옥체험관이 있어 1박2일 여행에 좋다. 차로 10분 거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 중 하나인 안동 도산서원이 있다.

●제주돌문화공원과 교래자연휴양림

제주돌문화공원은 창조의 여신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전설을 소재로 만든 복합 문화 공원이다. 제주돌박물관, 야외전시장, 옛 초가마을을 재현한 돌한마을 등으로 이루어졌다. 제주돌문화공원 옆 교래자연휴양림은 곶자왈 지대에 자리잡아 조금만 들어가도 깊은 숲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노부모나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사려니숲(붉은오름 입구) 무장애나눔길이 좋다. 삼나무 숲길에 나무데크를 설치해 휠체어와 유모차 통행이 가능하다. 인근에 만화 '피너츠'를 테마로 꾸민 스누피가든이 있다.

●대전 뿌리공원

효를 테마로 꾸민 국내 유일한 공원이다. 11만9062m² 규모로 성씨 조형물, 한국족보박물관, 산책로와 산림욕장 등을 조성했다. 한국족보박물관의 6개 전시실에서는 족보의 탄생과 제작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성씨 조형물을 설치한 산책로가 한국족보박물관 3층 출구와 연결된다. 동물원겸 테마파크인 '오!월드', '대전아쿠아리움'을 함께 돌아봐도 좋다.

●부산 해운대블루라인파크와 평화공원

해운대블루라인파크는 옛 동해남부선 철길 중 풍광이 예쁜 미포-송정 구간을 활용한 관광시설이다.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운영한다. 해변열차는 미포-송정 전 구간(4.8km)을, 4명까지 탈 수 있는 스카이캡슐은 미포-청사포 구간(2km)을 오간다.

남구의 평화공원은 부산시민이 좋아하는 가족나들이 명소다.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 기념묘지인 재한유엔기념공원 옆에 조성했다. 옛 해운대 기차역 뒤쪽의 해리단길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멋진 가게들이 모여 구경하는 맛이 남다르다.

●무주 태권도원

태권도 공연장과 박물관, 전용경기장, 체험장 등을 갖춘 세계 유일한 공간이다. 세계 하나뿐인 태권도 전용 경기장 T1에서는 격파와 품새, 춤이 어우러진 태권도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1박2일간 수련과 체험을 즐기고 인근 관광지를 둘러보는 '태권스테이'를 운영한다. 지전마을 옛 담장(국가등록문화재)은 흙과 자연석으로 만든 700m 담장 길로 봄날 산책하기에 좋다.

●아르떼뮤지엄 강릉과 허균·허난설헌공원

아르떼뮤지엄 강릉은 높이 8m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비롯해 '해변', '꽃', '동굴' 등 12개 공간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시한다. 동물을 색칠해 스캐너에 올리면 대형화면에 자신의 작품이 움직이는 '라이브 스케치북'은 어린이들에게 인기다. '정원'에는 강원도의 자연을 담은 작품이 국악인 송소희의 소리를 배경으로 흐른다. 근처에는 조선 문인 허균과 허난설헌을 기리는 기념공원이 있다.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와집 강릉 선교장도 같이 보면 좋은 명소다. oldfield@donga.com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노르딕 서프 앤 터프' 뷔페

'헬시 플레저' 외치는 호텔들, 보양식 메뉴 강화

올해 건강과 관련한 핫 트렌드인 '헬시 플레저'에 맞춰 호텔가에서 보양식 위주의 신메뉴를 내놓고 있다. '헬시 플레저'는 '즐겁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한다'는 의미로 최근 자기관리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다.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보양식 중심의 일식당 사까에 시그니처 코스를 내놓았다. 사시미(회) 5종과 스시 요리 11종의 메인 메뉴를 비롯해 삼치 초회, 해산물과 유바 유자 초회, 아귀맑은국, 복어살 연근 만쥬 튀김, 해물된장라멘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가덕대구로 만든 된장구이를 만나볼 수 있다.

서울드래곤시티는 모던 프렌치 비스트로 '알라메종 와인 앤 다인'에서 28일까지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더 헌트' 코스를 운영한다. 메추리, 꿩 등 이색적인 식재료로 만든 고급 정찬을 제공한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뷔페 레스토랑 '더 테라스'에 곡물 섹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보리와 흑미가 메인 재료인 샐러드 형태로 아보카도, 아몬드 그리고 각종 야채를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은 뷔페 '푸드 익스체인지'에서 '노르딕 서프 앤 터프' 뷔페를 진행한다. 이색적인 북유럽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그라브락스 연어, 덴마크식 스뫼르브뢰드 오픈 샌드위치, 덴마크식 미트볼 프리카델레르, 노르웨이의 대구살구이 아베뢰위 등을 운영한다. 3월 20일까지 금·토요일 저녁, 일요일 점심에 이용 가능하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25일 (금) 음력: 1월 25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겠지만 노력하면 이룬다.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큰 것은 바라지 말라.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뱀띠를 만나 자문을 구하면 길을 찾을 것이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청색 길방:동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성관계 조심하라.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오늘은 우왕좌왕하기 쉽고 엉뚱한 짓을 하기 쉬운 날이다.	돛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서두르지 말라.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에버랜드, 아마존 등 급류 어트랙션 운행 재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한승환)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겨울철에 운행을 중단했던 대표 급류 어트랙션들의 운영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우선 지난해 에버랜드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았던 인기 놀이시설 아마존익스프레스가 25일부터 본격 운행한다. 아마존익스프레스는 10인승 원형보트를 타고 580미터 길이의 수로를 따라 거친 물살을 즐길 수 있는 워터라이드 어트랙션이다. 썬더폴스(사진)는 하루 뒤인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트를 타고 수로를 이동하며 급류타기와 급강하를 즐길 수 있는 래프팅 어트랙션이다. 나무로 만든 롤러코스터 티익스프레스는 이미 11일부터 가동을 재개했다. 이로서 에버랜드의 모든 어트랙션들이 26일부터는 풀가동하게 된다. 김재범 기자

블랙야크, 등산화 '343 아크 GTX' 영상 공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아이유와 함께한 등산화 '343 아크 GTX' 광고 캠페인 영상(사진)을 공개했다. 블랙야크는 등산화 '343' 시리즈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 후 남은 에너지로 일상을 즐기자는 지속 가능한 산행을 제안하고 있다. 343은 등산 30%, 하산 40%, 일상 30%의 효율적인 에너지 배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해 대표 제품인 '야크 343 D GTX'는 '아이유 등산화'로 불리며 블랙야크 신발 중 단일 품목으로 역대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다. 광고 영상에서 아이유는 정상까지 가서 왜 답답하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후 '처음 신었을 때 쾌적함을 끝까지, 발끝까지 쿨하게'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정상에서 시원함을 만끽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양형모 기자

K2, 봄철 바람막이 자켓 '큐브 팩라이트' 출시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일교차가 크고 변화무쌍한 봄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가볍게 입기 좋은 '큐브 팩라이트'(사진) 자켓을 출시했다. 고어텍스 팩라이트 소재를 적용해 방풍, 방수, 투습 기능이 뛰어나다. 모든 봉제선에 특수 테이프를 덧대는 심실링 처리를 했으며 앞 여밈 및 옆주머니까지 방수 지퍼를 적용해 탁월한 방수 기능을 자랑한다. 라글랑 소매와 입체 소매 적용으로 활동성을 강화해 산행이나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게 접어 가방에 넣고 간편하게 휴대하기에도 좋다. 남성용 더스크 블루, 어스 카키, 화이트샌드, 여성용은 화이트 샌드, 민트 색상으로 출시됐다. 37만 원.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오늘의 날씨 25일(금)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 최고기온(℃)
서울	20/0	흐림	-2 / 9
인천	20/0	흐림	1 / 8
춘천	0/40	흐림	-8 / 10
강릉	0/0	맑음	1 / 13
대전	10/20	흐림	-4 / 11
전주	10/20	흐림	-3 / 10
광주	0/10	맑음	-2 / 11
대구	0/0	맑음	-3 / 13
부산	0/0	맑음	0 / 12
창원	0/0	맑음	-2 / 12
제주	10/0	맑음	3 / 11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7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